모다인패션디자인학원, 3D 가상모델 패션쇼

호남 지역 최초의 3D 가상모델(버추얼 모델) 패션쇼가 지난 5일 광주시 광산구 하울링 송정점에서 열렸다. 〈사진〉

(사)한국의류산업학회가 주최하고 광주 모다인패션디자인학원(원장 전성연)이 주관한 이번 패션쇼는 최근 열린 '국제 디지털 패션 디자인 콘테스트'에서 수상한 광주 지역 학생들의 작품을 선보이는 자리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정보기술과 패션이 융합된 가상모델 패션쇼는 2D CAD패턴을 3D 의상으로 제작한 'CLO 3D' 프로그램을 활용해 실제 의상의 샘플 없이도 결과물의 확인이 가능한 게 장점이다.

이날 패션쇼에서는 임정우(광주전자공고)군의 '다양성의 유토피아', 곽승우(전남고)군의 '창해유주' 등 지역 학생들이 직접 디자인하고 제작한 80여점을 선보였다.

전성연 모다인패션디자인 원장은 "이번 패션쇼는 미래의 패션디자이너를 꿈꾸는 학생들이 직접 디자인한 작품으로 3D첨단 패션쇼를 연 의미있는 자리"라고 말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대, 다문화 아동 한국어 학습 등 체험 프로그램

광주대학교(총장 김동진)는 지난 4일 광주 동구 가족지원센터에서 다문화 아동들을 상대로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사진〉

이날 광주대 한국어교육과·유아교육과·패션주얼리학부·항공서비스학과·다문화사회전문가 융합전공·K문화콘텐츠 융합전공 재학생들은 다문화가정 자녀 24명을 대상으로 한국어 학습 게임 및 만년 달력 시계 만들기 등을 진행했다.

광주대 재학생들은 오는 11일에도 지역 결혼이민자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과학교구 만들기, 소화과정 만들기 등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박경종 대학혁신사업단장은 "앞으로도 재학생들이 글로컬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비교과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활동을 활발히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호남대 김치사관학교 천순복·박현순 광주세계김치축제서 수상 영예

호남대학교 평생교육원(원장 최영화)이 개설한 김치사관학교(교육원장 김옥심 김치명인) 수강생들은 지난 3~6일 광주상무시민공원에서 열린 '제30회 광주세계김치축제 김치 경연대회'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치사관학교 설립 1년만의 겹경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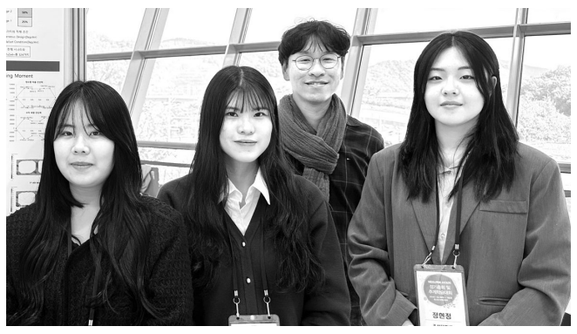
호남대 김치사관학교 1급김치전문가 천순복씨〈왼쪽〉는 '양파김치'를 출품해 최우수상(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박현순씨는 '아마린스 수박 물김치'로 우수상(광주시장상)을 수상했다.

호남대학교 평생대학원의 김치사관학교는 외식조리학과 동문이자 '대한민국 김치명인 1호'인 김옥심씨와 외식조리학과 김영균·이선호 교수 등 전문 강사진들이 특별강좌로 구성됐다.

지난 3월부터 김치전문가 1급 과정을 운영해 우리 김치의 우수성을 알리는 등 호남대만의 김치 브랜드를 개발중이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조선대 스마트이동체융합시스템공학부, 학술대회 회장상



조선대학교(총장 민영돈) 스마트이동체융합시스템공학부 정현정(4년)씨 외 13명(지도교수 이명수)이 최근 대한조선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열린 '제32회 학생선박설계콘테스트'에서 한국선급 회장상을 수상했다. 〈사진〉

학생들은 이번 대회의 지정과제인 'EEDI Phase 3를 만족하는 친환경 Aframax COT설계'에 대해 최적선형을 도출, 친환경선박을 성공적으로 설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선박의 선수부에 전통적으로 사용됐던 구상선수를 없애고 새로운 디자인을 제안하는 아이디어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정현정씨는 "2년째 도전한 학생선박콘테스트 대회에서 수상을 하게 돼 영광이다. 선박해양전공 교수님들의 열정적인 지도를 통해 수상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조선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훌륭한 인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국립광주과학관, 광산구청·시교육청과 미래기술학교

국립광주과학관(관장직무대리 전태호)은 지난 4일 광산구청·광주시교육청과 함께 미래기술학교를 개최했다. 과학관은 이날 광산구 고등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천문우주·생명과학 등 분야의 직업 체험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김상헌 박사의 멘토링을 실시했다. 〈국립광주과학관 제공〉

운암중 행정실 장영순씨 전국 미술공모전 대상 수상

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는 교직원이 전국 미술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 눈길을 끌고 있다.

운암중학교장영순씨가(사)한국정수문화예술원이 주최한 제24회 대한민국 정수(正修) 미술대전에서 '선암사의 여름'으로 정수대상(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수상했다. 올해 공모전에는 한국·서양화, 민화, 공예 등 4개 부문에 총 706점이 접수됐다.

이번 정수 대상을 수상한 장씨는 올해 제18회 대한민국 소치미술대전 한국화분야에서도 대상을 수상하는 등 본업 이외에도 작가로 활발하게 작품 활동을 해왔다.

장씨는 "퇴근후에 작업하느라 힘든 점이 있었는데, 이렇게 큰 성과로 이어져 감사하고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장씨는 8일부터 14일까지 광주예술의거리 향담갤러리에서 개인전도 개최한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TV프로그램 8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버킷리스트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7	50 인간극장	00 해 볼만한 아침 M&W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세 번째 결혼(재)	20 KBC 모닝와이드 40 모닝와이드
8	25 아침마당		30 생방송 오늘 아침	40 맨 인 블랙박스 스페셜 50 좋은아침
9	30 KBS 뉴스	00 KBS 아침 뉴스타임 20 우아한 제국(재)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50 SBS 10 뉴스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0 인간극장 스페셜 40 지구촌 뉴스	45 뽀뽀뽀 좋아좋아 스페셜	30 살맛나는 오늘
11	00 제43회 전국장애인 체육대회	00 제21회 박찬호기 전국 초등학교 야구대회 결승전	15 꾸러기 식사교실(재) 45 주니토니이야기	00 애니갤러리 30 꼬미마녀 라라 45 헬로카봇 X
12	00 KBS 뉴스 12		00 12 MBC 뉴스 25 오늘도 사랑스럽개(재)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5 영암도민의날 기념 KBC축하쇼
1	00 KBS네트워크특선 아마도 마지막 존재 5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40 이 맛에 산다(재) 55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00 KBS 뉴스 10 열린채널 50 어린이 동물티비			00 뉴스브리핑
3	20 팔도밥상(재)	00 KBS 뉴스타임 15 반지의 비밀일기 2(재) 30 TV 유치원	55 기분 좋은 날(재)	
4	00 사사건건	00 스튜디오 K 스페셜 30 글로벌 연예정보 GET	55 5 MBC 뉴스	00 7학년 주식회사 시즌2 40 도시락 스페셜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재)	00 스페이스 동의보감 2 30 꿀잼 영화가 좋다	10 출발! 비디오 여행 스페셜 20 본방을 보자	00 SBS 오뉴스 50 KBC뉴스와이드
6	00 6시 내고향	00 KBS 뉴스 6 40 2TV 생생정보	20 KBO 한국시리즈 2차전 〈KT:LG〉	45 닥터 365 50 생방송 투데이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KBS광주 특별음악회 - 오감	50 우아한 제국		50 SBS 8 뉴스
8	30 우당탕탕 패밀리	30 옥탑방의 문제아들		30 KBC 8 뉴스
9	00 KBS 뉴스 9	45 살림하는 남자들		00 골 때리는 그녀들
10	00 생로병사의 비밀 50 KBS 뉴스라인W		00 MBC 뉴스데스크 30 라디오스타	40 옆집 남편들-녹색 아버지회
11	30 이슈 픽 쌤과 함께 스페셜	00 더 라이브		
12	00 시사기획 창(재) 50 도시의 거리	00 아이 러브 스포츠 25 KBS 드라마 스페셜 2023(재)	10 오늘도 사랑스럽개 몰아보기	00 KBC 문화가중계

EBS1

05:00 왕초보 영어
05:30 클래스 e
05:50 한국기행
06:10 세계테마기행
07:00 허풍선이 미술쇼
07:15 시몽
17:30 엄마 까투리
07:45 고고다이노 공룡탐험대
08:00 딩동댕 유치원
08:20 웃기는 처음 영어
08:50 레인보우 버블젬
09:05 최고다! 호기심딱지(재)
09:2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10:10 한국의 둘레길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뉴스 12
12:10 다큐영화 길 위의 인생
13:00 EBS 평생학교 1교시
13:45 EBS 평생학교 2교시
14:30 EBS 평생학교 1교시
15:15 강신주의 장자 수업
16:00 영어 스토리 타임
16:10 똑똑 문해력 박사
16:40 딩동댕 유치원(재)
17:00 페파 피그
17:10 마샤와 곰
17:20 뒤죽박죽섬의 빅풋패밀리 쇼츠
17:25 허풍선이 미술쇼
17:40 웃기는 처음 영어(재)
18:10 다이노스터(재)
18:40 EBS 뉴스
19:00 한국의 둘레길
19:20 고향민국
19:50 귀하신 몸(재)
20:40 세계테마기행 〈물 만난 노르웨이-피오르 백배 즐기기〉
21:35 한국기행 〈섬을 걷다 백섬백길 3부 그림이 되는 풍경, 도초도〉
21:55 왔다! 내 손주
22:45 교육대기획 대한민국, 교육이 희망이다 -클래스 UP! 교실을 깨워라
23:40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1월 8일 (음 9월 25일 庚午)

☎ 010-9790-8237

子 36년생 독창성이 없다면 식상할 뿐이다. 48년생 쾌도난마 했을 때 참신한 대안을 찾게 된다. 60년생 분명한 목적의식을 갖고 임하는 것은 중하다. 72년생 당분간 말 없이 지켜보면서 신중하게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84년생 지금 도모하지 않는다면 침체하게 된다. 96년생 포기하지 않고 진행한다면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행운의 숫자 : 30, 62

丑 37년생 그릇이 커야 많이 담을 수 있다. 49년생 따스한 행운의 햇살이 포근히 감싸고 있다. 61년생 한 점도 소홀함이 있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73년생 계획했던 본래의 의도에서 상당히 벗어날 수도 있다. 85년생 거슬리더라도 충고에 귀 기울이는 것이 좋다. 97년생 체계적인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가동하는 것이 낫다. 행운의 숫자 : 42, 97

寅 38년생 사심 없이 베푸는 일이야말로 복 받는 법이니라. 50년생 문제가 될 소지는 없으니 마음 놓아도 된다. 62년생 가장 우선시해야 할 절실한 문제가 보인다. 74년생 근본적인 처방을 하지 않는다면 불협화음이 생긴다. 86년생 오리무중의 와중에서 가까스로 실마리를 찾게 된다. 98년생 작은 것에 집착하다가 큰 것을 잃는다. 행운의 숫자 : 05, 65

卯 39년생 자신감을 갖고 확실하게 실행하는 것이 낫다. 51년생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해 보는 것이 지혜롭다. 63년생 일시적으로 중단 수가 보이지만 머지않아 재개될 것이다. 75년생 암초만 주의한다면 무난하게 입항할 수 있느니라. 87년생 막연하다면 단처를 드러내게 된다. 99년생 정성을 다한다면 길사에 이른다. 행운의 숫자 : 27, 61

辰 40년생 일반적 보편성을 결여한 주관은 오류를 낳기 쉬운 국량이다. 52년생 흘어져 있는 것이 모아지리라. 64년생 매사에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76년생 여무지게 마무리하고 나야 후일을 도모하기가 용이해진다. 88년생 별로 상관될 일이 아니니 괘념치 말고 처리하라. 00년생 중대사와 연결될 소지가 있다고 본다. 행운의 숫자 : 09, 72

巳 41년생 번거롭더라도 막상 해 놓고 보면 실리가 따를 것이다. 53년생 준비하고 있어야만 제대로 돌아가느니라. 65년생 가려서 듣지 않으면 손재수를 야기하게 된다. 77년생 생각하지도 않았던 부분에서 허점이 드러난다. 89년생 새로운 변화를 꾀한다면 재물이 들어올 수이다. 01년생 심사숙고하지 않으면 후회하리라. 행운의 숫자 : 01, 66

午 42년생 조금만 더 오른다면 고지에 도달하게 되리라. 54년생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생산적이다. 66년생 이득이 발생할 것이니 즉시 실행함이 유익하다. 78년생 제대로 역량을 발휘해야 할 국면에 이르렀도다. 90년생 사소한 부주의가 구설과 시비로 이어질 수도 있다. 02년생 석연치 않다면 과감하게 배제해도 된다. 행운의 숫자 : 07, 63

未 43년생 생활에 보탬이 될 만한 유익함이 보인다. 55년생 가급적 상대에게 맞추어 주는 것이 현명하다. 67년생 주관과 소신을 가지고 임해야 비전이 보인다. 79년생 서로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음도 간과하여서는 아니 될 일이다. 91년생 안배와 활용을 잘해야 하겠다. 03년생 생활에 활력소가 될 만한 일이 보인다. 행운의 숫자 : 22, 71

申 44년생 분명히 해둬야 뒤탈이 없는 법이다. 56년생 초심을 잃지 않는다면 무난하게 매듭지어진다. 68년생 생소하다고 해서 굳이 경계할 이유까지는 없다. 80년생 생각지도 않은 말을 듣게 되어 당황할 수도 있다. 92년생 사소함을 차치하고 과단한다면 후회가 없을 것이다. 04년생 반드시 하나하나씩 점검해 봐야 할 시기이다. 행운의 숫자 : 35, 82

酉 45년생 가파른 낭떠러지에 서있는 판세에 비유할 만하다. 57년생 작은 것을 아끼려다가 소중함을 잃을 수 있다. 69년생 체계를 인식하고 기본에 충실해야 무탈하다. 81년생 상대의 저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제일 중하다고 볼 수 있다. 93년생 파문을 일으키는 이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05년생 비단옷 위에 꽃을 더한 격이로다. 행운의 숫자 : 12, 81

戌 34년생 바람직한 형태로 자리 잡게 될 가능성이 크다. 46년생 시작은 미미할지언정 진행하면서 흥하리라. 58년생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될 일이니 속 태울 필요가 없다. 70년생 따오기는 목욕을 하지 않아도 희도다. 82년생 호랑이에게 물려가더라도 정신만 차리고 있다면 화를 면할 수 있을 것이다. 94년생 지금 마무리하는 것이 낫다. 행운의 숫자 : 11, 99

亥 35년생 차분하게 임해야 후회 없는 대처를 할 수 있다. 47년생 치열함의 강도에 따라서 성과가 좌우될 것이다. 59년생 상호 간의 입장과 처지를 고려하면서 나가는 것이 순조롭다. 71년생 가까이할수록 손해이니 속히 정리하자. 83년생 의문의 실체를 파악하게 되는 기쁨이 있다. 95년생 장담하고 나면 머지않아 후회하게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14, 74